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5월 일자리 상승 27만2천개... 예상치 상회... 실업률은 4%로 상승
- The Economist: 미 경제 우려 조짐 불구하고 소비 낙관적이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무디스사, 부동산 대출 관련 6개 미 은행 부채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 Bloomberg: 미 국채 금리 상승... 일자리 크게 상승해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주택]

- WSJ: 미 모기지율 6.99%로 하락

[반도체]

- WSJ: 미국 반도체 법(CHIPS Act), 글로벌 경쟁과 비용 등 어려움 직면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코로나19 이후 미국 근로자들, 힘든 식품 창고직으로 복귀
- CNBC: GM, 코스트코와 손잡고 전기차 판매 확대 추진
- CNBC: Five Below CEO,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저가 선호 고객 증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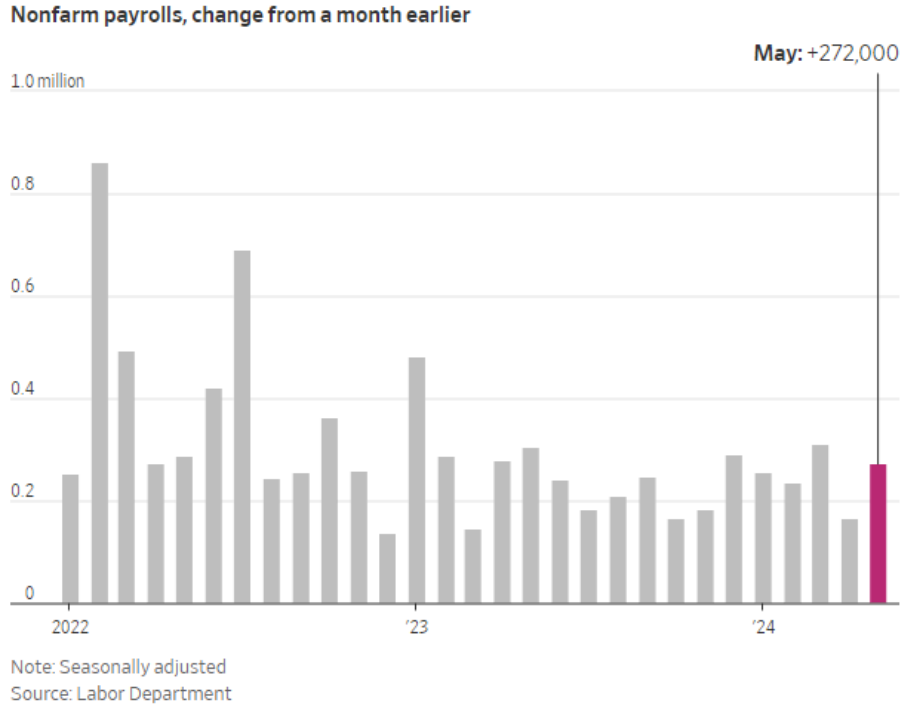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Employers Added 272,000 Jobs in May

5월 일자리 상승 27만2천개... 예상치 상회... 실업률은 4%로 상승

- 5월 일자리 증가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4%로 상승해 그동안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생각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엇갈린 시각을 시사하고 있다.
- 연방노동부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5월 비농가 일자리 증가 수는 계절 조정치로 27만2천개 증가했다. 4월보다 높은 데다 전문가들 예상치 19만개를 뛰어넘었다.
- 실업률은 4월의 3.9%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평균 임금 수입은 예상치를 넘어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 이같은 견조한 일자리 상승과 강한 임금 상승 지표 때문에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를 철회했다고 볼 수 있다.



WSJ 기사

The Economist: Is America’s economy heading for a consumer crunch? 미 경제 우려 조짐 불구하고 소비 낙관적이다

미국의 월간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3월의 0.7%에서 4월에 0.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여러 소매 업체들이 고객들의 소비가 줄어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5월 31일에 발표된 최신 지출 데이터는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나 낮춰, 올해 2분기의 ‘현재 전망치’를 1.8%로 낮추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신용카드 데이터로도 설명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가계는 팬데믹 동안 모아둔 2조 1천억 달러의 저축을 모두 소진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The Economist 기사

요약 /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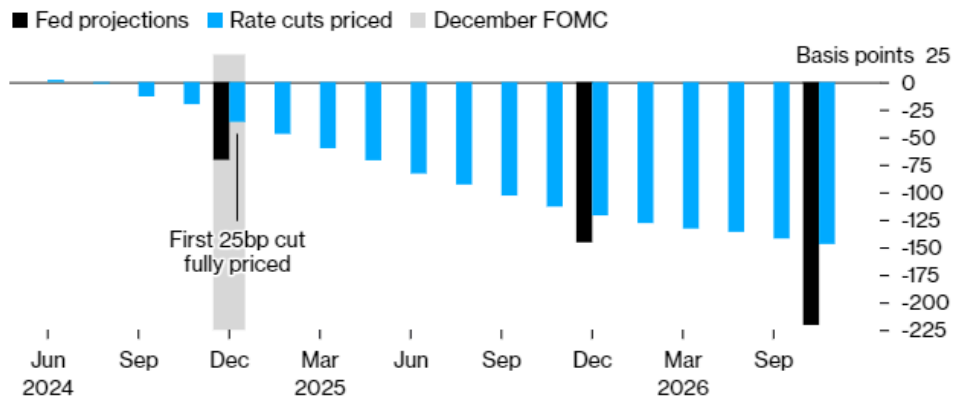
[미국 금융]

Bloomberg: Moody’s May Cut Six US Banks on Commercial Real Estate Exposure 무디스사, 부동산 대출 관련 6개 미 은행 부채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 무디스사는 부동산 대출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최소 6개 미 은행의 부채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해당 은행들은 First Merchants Corp., F.N.B. Corp., Fulton Financial Corp., Old National Bancorp, Peapack-Gladstone Financial Corp. WaFd 등이다.
- 무디스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이들 지역 은행들은 지속적인 자산의 수준과 수익성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특히 경기 침체기에 이 은행들이 리스크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

Fed Swaps Price First Cut For December FOMC

Hawkish re-pricing across Fed-dated OIS after strong May jobs report



Source: Bloomberg
Note: Fed cut projections based off Fed-dated OIS series vs. Fed effective rate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easuries Yields Surge as Hot Jobs Data Dim Fed Rate-Cut Bets

미 국채 금리 상승...일자리 크게 상승해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 강한 일자리 상승 보고서로 인해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줄이면서 미 국채 금리는 크게 상승했다.
- 연준 금리 정책의 전망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은 거의 15 베이스스 포인트 내린 4.87%로 거래 중이다.
- 파생상품 거래자들은 빠르면 11월에 금리 인하를 점쳤으나 그 가능성이 80%로 감소했고, 올해 전체 선물 상황은 연준 금리 폭이 47 베이스스 포인트에서 단지 37 베이스스 포인트일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주택]**WSJ: Mortgage Rates in US Slip Below Key Level, Falling to 6.99%**
미 모기지율 6.99%로 하락

- 미 모기지율이 7% 밑으로 하락해 주택 구매 희망자들의 부담을 약간 줄어 줄 것으로 보인다.
- Freddie Mac의 이번 주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이 지난주 7.03%에서 6.99%로 떨어졌다.
- 모기지율은 지난 2개월 동안 7%대에서 맴돌면서 구매 수요를 약화시키고 주택 시장의 성수기 시즌을 어렵게 해왔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자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현재 이자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성수기는 연초 전망에 비해 실망스러운 성수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WSJ 기사

[반도체]**WSJ: The U.S. Gave Chip Makers Billions. Now Comes the Hard Part.**
미국 반도체 법(CHIPS Act), 글로벌 경쟁과 비용 등 어려움 직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3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반도체 법(CHIPS Act)'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났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보조금 할당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 그리고 막대한 비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WSJ 기사

요약 / 번역

[비즈니스와 기업동향]**Bloomberg: US Workers Are Returning to Tough Food-Warehouse Jobs After Covid Lull****코로나19 이후 미국 근로자들, 힘든 식품 창고직으로 복귀**

- 미국의 주요 레스토랑 및 호텔 식품 공급업체인 US Foods Holding Corp.의 CEO Dave Flitman은 팬데믹 이후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으며, 인력 유치와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

는 팬데믹 연방정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창고 일이나 트럭 운전 등 힘든 직종에 투입되고 있어 인력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Flitman은 팬데믹과 높은 임금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주 5일 근무 대신 주 3~4일 근무를 제공하는 등 유연성을 통해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GM has a secret to help sell its new EVs. It's Costco. **GM, 코스트코와 손잡고 전기차 판매 확대 추진**

- 제너럴 모터스(GM)는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코스트코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GM은 Chevrolet Equinox 및 Chevrolet Blazer과 같은 대중화된 차량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코스트코의 'Costco Auto Progra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GM 북미 지역 부사장 Marissa West는 코스트코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트코의 5천 만 명 이상의 회원을 통해 전기차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 최근 GM, 포드,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전략을 수정하여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순수 전기차 메시지를 완화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도입하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CNBC 기사

CNBC: The low-end consumer 'is really being stretched,' says Five Below CEO **Five Below CEO,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저가 선호 고객 증가"**

-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할인 소매업체 Five Below의 CEO Joel Anderson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그 영향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
- Anderson은 수요일 애널리스트들과의 전화에서 "저가 선호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매장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소비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돈을 쓰며, 필요에 따른 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 유형이 이를 반영한다고 말하며, 식품 및 음료, 미용 및 건강 보조 제품 등의 '소모품' 카테고리에서 판매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CNBC 기사

"ECB 금리 내렸지만 유로존 국채 금리↑..."추가인하 기대 낮아"**"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동반 상승세...물가안정 위한 '매파적 인하' 해석"**

유럽중앙은행(ECB)이 5년 만에 금리 인하를 발표했지만 유로존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ECB가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가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통화정책을 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런던 시간 기준으로 6일 (이하 현지시간) 오후 3시 12분 유로존 벤치마크로 평가되는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6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2.557%를 기록했다. 독일의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4bp 상승한 연 3.025%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